

전후의 농촌과 불가능한 혁명의 서사

— 오유권의 『방앗골 혁명』을 중심으로

이민영*

1. 서론
2. 농촌 사회의 모순들과 금기된 혁명의 가능성
3. 낭만적 사랑의 도피와 외연 없는 반공주의의 세계
4. 고립된 평화와 퇴행하는 재건의 논리
5.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오유권의 『방앗골 혁명』에 나타난 혁명의 서사에 주목하여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혁명의 문학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960년대는 새로운 혁명의 의미들이 등장하였고 또 동시에 좌절되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실제로 혁명의 당대적 의미를 다루는 작품들은 많지 않다. 오유권은 농촌 사회를 배경으로 혁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마을의 봉건적 신분제도를 분열과 갈등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방앗골 혁명』은 계급 갈등의 문제를 가시화하면서 금기된 혁명의 가능성들을 드러낸다. 또한 전장이 아닌 평화로운 농촌의 풍경을 통해 잔혹한 전쟁의 폭력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이념 갈등을 넘어서 평화와 결속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형상화한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인 순태와 금순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의 사랑은 상촌과 하촌의 계급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평화적인 대안으로 등장한다.

낭만적 사랑을 통해 추동되었던『방앗골 혁명』의 혁명적 의지들은 강력한 반공 이데올로기 내부에서 좌절된다. 좌익의 경력을 지닌 주인공은 전쟁을 통해 반공의 외부는 없다는 현실을 확인한다. 그리고 정치적 발화가 금지된 마을에서 갈등의 해소를 위해 혈연적 결속을 시도한다. 일부다처의 가족제도는 상촌과 하촌의 사이에 놓여있는 분열과 갈등의 불안들을 봉합하는 유일한 방안으로 등장한다. 결국 모든 폭력과 복수를 금지하는 평화의 혁명론은 퇴행적인 원시 공동체라는 형태로 종결된다.

이 같은 혁명의 담론은 전망을 상실한 1960년대 혁명 정신의 거울상과 같다. 전후 방앗골의 뿌리 깊은 불평등과 학대의 문제는 더 이상 혁명의 목표가 되지 못하고, 퇴행된 혁명의 의지는 방앗골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삭제하여 방앗골을 하나의 신화적 공간에 대한 상상태로 전환시킨다. 이 같은 방앗골의 혁명 서사는 민족에 대한 상상을 신화화하면서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전쟁 서사의 원형적인 구조를 드러낸다. 그리고 분단 사회에서 혁명의 정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왜곡, 전유되고 있었는가를 확인해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혁명, 낭만적 사랑, 계급, 전쟁, 정치적 무의식)

1. 서론

1960년대는 혁명으로 시작되었다. 4.19 혁명은 전후의 폐허 속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가치를 재고하게 했고, 그 결과 민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들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다. 동시에 이 짧은 혁명의 순

간은 혁명의 의미와 가능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도 했다. 1961년 군사 쿠데타에 의해 좌절된 민주주의적 정치 혁명은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실천의 방향과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방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제3공화국 선거를 앞둔 1963년 4.19 기념일에 유진오는 부유하는 혁명의 의미에 대해 주목할 만한 한 편의 글을 남긴다.

4月革命이 일어났을 때 一部에서는 그것은 革命이라 불수없고 學生들을 主軸으로 하는 義舉라 하였고, 後 어느틈엔가 「4月義舉」, 「5月革命」이라는 用語例가 漸次 普遍化되어있는듯하다. 생각컨대 論者들은 革命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좀더 그 科程이 激烈하여야하고, 또 舊政權을 무너뜨리는데 中心的役割을 다한 所謂 革命主導勢力이 새로 成立된 政權의 中樞勢力이 되어야하겠는데 4月革命 때에는 流血이나 破壞의 分量이 과소(!)하였고, 또 「生命을 걸고」 革命의 선두에 섰던 學生이나 教授들이 舊 政權이 무너지자마자 도로 學園으로 돌아가 조용히 勉學과 研究에 從事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革命이라 부르기에는 좀 싱겁다는 느낌을 품고 있는 것인듯하다.¹⁾

유진오는 4월 19일의 학생운동과 5월 16일의 군사 쿠데타가 동일한 ‘혁명’의 명칭을 획득할 수 있었던 1960년대 초반 “혁명”의 혼란스러운 용어례를 날카롭게 간파해낸다. 유진오는 ‘4월 혁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이다.’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4.19가 온전히 혁명의 기표를 획득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그는 다수의 논자들이 “유혈과 파괴의 분량이 과소”했다는 점, 그리고 구정권을 무너뜨린 뒤 새로운 정권을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운동의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어 4.19의 혁명성을 부정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 같은 4.19 혁명의 부정은 곧

1) 유진오, 〈혁명론 이제부터다.〉, 『동아일보』, 1963.4.19.

새로운 정부를 세운 5.16 쿠데타의 혁명성을 승인하는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유희과 파괴의 측면이 강조된다면 군사 쿠데타는 부정한 권력에 대한 항거라는 의미가 없이도 혁명의 기표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혁명은 이제부터”라고 강조하는 유진오의 논지와 같이 4월의 혁명은 그동안 계급혁명이라는 위협한 사상의 문제로부터 혁명을 해방시켜 다양한 혁명의 기의들을 탐색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군사 혁명이라는 모순된 용례의 등장은 바로 이러한 혁명의 의미망을 재전유하는 과정에서 가능했다. 결국 1963년 제3공화국의 수립을 통해 다양한 혁명의 가능성들은 군사 혁명이라는 하나의 기표로 수렴되었고,²⁾ 그 후 오랫동안 한국의 혁명은 군사 혁명이라는 위축되고 기형적인 의미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1960년대의 혁명의 순간에 혁명을 직접적으로 서사화하는 작품들은 오히려 매우 제한적이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작가라 불리던 오유권이 ‘혁명’을 제호로 하는 장편 소설을 발표했다는 점은 주목해볼 만하다.⁴⁾ 1962년 오유권은 『방앗골 혁명』(을유문화

2) “가난과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를 빨리 벗어던지려는 초조는 결국 쿠데타를 예기하고 묵인케 했다.”는 권보드래·천정환의 견해와 같이 1960년의 4.19 혁명이 1963년의 제3공화국 정부수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분석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혁명의 개념 전환을 전제로 당대의 급변하는 정치 사회적 상황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 상상, 2012, 61쪽.

3) 4.19의 소설적 형상화를 탐구하는 다양한 논문들은 실질적인 혁명의 경험과 서사화된 결과물 사이에 놓인 간극에 주목한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권보드래, 『4월 문학혁명, 근대화론과의 대결』, 『한국문학연구』 3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0; 임규찬, 『4월 혁명의 기억과 글쓰기』, 『작문연구』 12, 한국작문학회, 2011; 추선진, 『4.19 소설의 여성 표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2(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8; 박대현, 『4월 혁명 이후의 공백과 탈공백』, 『한국 문학이론 비평』 5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김미란, 『젊은 사자들의 혁명과 증발되어버린 ‘그/녀들』, 『여성문학연구』 23, 한국여성문학회, 2010.

4) 오유권은 『현대문학』에서 황순원의 추천으로 등단한 뒤 농촌의 경험을 다루는 소설

사)을 발표하게 된다. 이 작품을 통해 그는 혁명과 관련된 정치적 의미들을 모두 삭제하면서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또 다른 혁명의 장면을 상상해낸다. 이는 당대의 혼란스러운 혁명의 기표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혁명의 용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오유권의 『방앗골 혁명』은 1963년 이후 ‘혁명’의 기표가 오랜 침묵의 상태에 놓이기 직전에 발표된 작품이다. 『방앗골 혁명』이라는 제목은 일편 모순적으로 느껴지는데, 그것은 정치 권력의 핵심이었던 서울을 벗어나 농촌의 한 마을을 혁명의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혁명의 담론이 서울을 중심으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던 시점,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방앗골 혁명』은 방앗골이라는 폐쇄적인 농촌 마을의 전쟁 경험을 다루면서 마을 내부에서 극복되지 못한 계급 갈등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서사화한다. 이 작품은 전근대적 사회체제로부터 기원하는 오랜 신분 구조의 문제를 재조명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명의 의식을 드러낸다. 이에 더해 낭만적 사랑의 서사를 통해 서사의 갈등을 구조화 함으로써 1960년대 초반 다양한 혁명의 용례들 사이에서 “유희와 파괴”의 혁명론을 이탈해나가는 새로운 혁명의 욕망들을 목격할 수 있게 해준다.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낭만적 사랑의 이상 속에서 전쟁의 잔혹성은 더욱 강조되고, 이념 대립의 폭력적 구도가 가시화되는 것이다.

오유권의 『방앗골 혁명』을 통해 드러나는 이 같은 혁명의 과정이 문제적인 것은 이러한 혁명에 대한 지방적인 시도가 결국 방앗골의 외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앗골의 혁명은 결국 현실로부터

을 주로 발표하였다. 그는 전후 작가 중 드물게 영산강 유역을 배경으로 하는 다수의 소설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전후문학의 지방성에 대해 사유할 수 있게 해주는 작가이다.

강제적으로 분리되어 신화화된 세계로 퇴행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모든 정치적 이데올로기와의 단절을 시도한 농촌 해방의 서사는 역설적으로 반공주의라는 강력한 이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평화로운 농촌이라는 신화적 상상력 속으로 용해되어 버린다. 이는 당대의 사회에서 “유희와 파괴”를 거부하는 혁명의 논리가 얼마나 위태롭고 제한적이었는가를 보여준다.

『방앗골 혁명』의 전쟁 서사에는 단순히 농촌공동체의 탈역사적 민족담론으로 귀결될 수 없는 무의식⁵⁾과 그것의 전위 과정이 담겨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무의식의 개념을 전제로 『방앗골 혁명』의 혁명 서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분단체제 내부에서 혁명의 무의식이 표출되고 또 전유 되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오랜 시간 우리가 지향하고 또 금기시했던 혁명의 정신이 현현하는 순간과 이것이 억압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혁명의 의미를 중심으로 『방앗골 혁명』을 살펴볼 때, 이 작품이 창작되었던 당대의 상황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방앗골 혁명』은 1960년대 당시 혁신적인 방식으로 발표된 작품인데, 장편 소설들이 주로 신문이나 잡지 연재를 통해 발표되었던 것과 달리, 이 작품은 을유문화사를 통한 권의 단행본으로 발표되었다. 을유문화사는 신작 장편을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한국신작문학전집》을 기획하면서 당대의 신인 작가들의 창작을 독려한다. 여기에는 오유권의 『방앗골 혁명』 외에도 정한숙, 유주현, 강신재, 박경리 등 당대 주목받았던 작가들의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을유문화사는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새로운 작품의 출간을 알렸

5) 정치적 무의식 이론의 기능과 필요성은 이 중단없는 서사의 흔적들을 찾아내는 데에, 이 근본적인 역사의 억압되고 묻혀진 현실을 텍스트의 표면 위로 복원하는 일에 있다. 프레드릭 제임슨, 『정치적 무의식』, 이경덕·서광목 역, 민음사, 2015, 21쪽.

고, 이는 문단 내부에서도 주목받는 사건이 되었다. 신작 장편의 단행본 발간은 한국 장편 소설의 작품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답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으며,⁶⁾ “한국문학 발전의 새로운 전기”⁷⁾를 마련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적 시도를 당대 문단이 보여주었던 혁명에 관한 대응의 일부로 읽어낼 때, 의도되지 않은 혁명의 효과들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완성된 형태로 발표된 한 편의 장편 소설을 통해 재현 불가능했던 1960년대 초반의 현실을 가시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유권의 『방앗골 혁명』은 그것의 배경이 되는 농촌이라는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 당대적 사회와 시대적 맥락을 배경으로 다시 읽힐

6) 新聞 連載하는 경우 作家는 毎回의 제약된 紙面과 讀者를 하루하루 끌고 나가야한다는 執念때문에 質의 低下는 不可避하다고들 말한다. 그리하여 新聞小說보다는 雜誌에 연재된 것이 더 『本格的인』 것으로 通하고 長篇보다는 短篇이 우리 文學史의 正統이란 것이 이미 定設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發表의 制約 作家들의 經濟的 不安定 急激한 政治靑況의 變遷 등 文學外的惡條件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에 이렇다할 長篇이 없는 것은 결국 作家들의 力量과 教養問題라고 告發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이번의 두 全作長篇은 이러한 論難의 證據品으로 제시된 것이다. 『방앗골 革命』은 吳有權 씨가 短篇으로 끈기 있게 다루어온 農村社會에 있어서의 階級的 葛藤, 倫理의 矛盾을 六二五라는 무서운 衝激을 빌려 종합적으로 檢討하고 素朴한 그야말로 『農夫의 科學』으로 새 社會를 九想한 設計圖이다. (〈全作長篇小說의 出版〉, 『조선일보』, 1962.9.21.)

7) 乙酉文化史에서는 外國번역물출판에 치우치고 있는 出版 傾向을 止揚하고 國內著作家에게 고무 기회를 마련해주고 力量있는 新銳作家들의 創作意欲을 돋구기 위하여 新作으로된 全作長篇全集을 기획하였다. 즉 해방후 등단한 作家로서 지금까지 五個年 정도를 꾸준히 作品活動을 계속한 新銳作家十六名의 作品을 모아 韓國文學發展에 새로운 轉機를 가져오고자 今年內로 出版에 착수하리라 하며 作家와 作品은 다음과 같다. 1. 朴淵禧 運河, 2. 鄭蕙淑 끊어진다리 3. 俞湖 木蓮꽃필무렵, 4. 柳周鉉 이사람을 보라, 6. 康信哉 미정, 7. 朴容九 灰色斷層, 7. 全光鏞 不毛의 反旗, 8 吳尙源 四月의 陰地, 9. 金光植 極東의 墓碑, 10. 吳有權 방앗골革命, 11 李範善 大膽한 告白, 12 李浩哲, 彷徨하는 사람들, 13 秋湜 終點에산다. 14. 朴景利 未定, 15. 鮮于輝 永遠의 구름다리, 16. 權泰雄 人間問題. (〈新銳掌篇小說全集刊行〉, 『동아일보』, 1961.5.7.)

필요가 있다. 농촌 작가라는 규정 속에서 오유권의 소설에 대한 연구들은 종종 체험적 경험의 리얼리티와 민중 의식의 가능성에 주목해왔다.⁸⁾ 하지만 이러한 평가 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범박한 휴머니티에 한정된다. 43년간 약 250여 편의 작품을 남겼음⁹⁾에도 불구하고, 오유권의 작품들이 한국문학사에서 충분한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같은 한정된 평가의 기준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유권의 농촌 혁명 서사를 당대적 맥락에서 다시 읽어냄으로써 전후 혁명 서사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재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치담론화 되지 못한 채 민중의 내부에 상존하고 있던 혁명의 상상력들을 구체화하고 그 전유된 의미들을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 농촌 사회의 모순들과 금기된 혁명의 가능성

오유권의 『방앗골 혁명』은 방앗골이라는 하나의 공간을 중심으로 전쟁의 경험을 서사화한다. 이때 주목되는 것은 방앗골이라는 농촌의 공간을 중심으로 서사화되는 전쟁과 전후의 경험이 냉전체제의 반공 이데

8) 오유권의 작품에 대한 다음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농촌 작가 오유권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문학적 의의를 밝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봉범, 『민중적 시각으로 조명한 전쟁의 비극과 농촌공동체 복원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16, 민족문학사학회, 2000; 이봉범, 『체험적 서사와 역사적 진실성』, 『반교어문연구』 23, 반교어문학회, 2007; 이봉범, 『오유권 문학의 특징과 위상』, 『한민족문화연구』 44, 한민족문화학회, 2013; 변화영, 『오유권 소설에 나타난 농촌 여성의 표상』, 『현대문학이론연구』 57,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변화영, 『전후 작가의 공간체험과 기억의 재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최애순, 『1950년대 농촌 소설의 위치와 '1950년대 농촌의 순수 지향성』, 『국제어문』 61, 국제어문학회, 2014; 최은영, 『주변인으로서의 농촌 여성과 궁정의 세계』, 『Journal of Korean Culture』 35,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6.

9) 최은영, 『오유권 선집』, 현대문학, 2013, 429쪽.

올로기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농촌을 배경으로 삼는 『방앗골 혁명』에서 전쟁은 북한의 인민군과 남한 국군의 직접적인 전투로 경험되지 않는다. 마을 밖 전쟁의 이데올로기는 갈등의 본질이 아닌 하나의 촉매제로 등장하는데, 방앗골의 갈등 구조의 근간이 되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온 상하촌의 갈등이다.

『방앗골 혁명』은 전쟁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서사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경험을 농촌 사회에 한정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눈앞에 놓인 전쟁을 냉전체제라는 현재의 상황인 아닌 과거로부터 유발된 내재적인 원인의 발현으로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 상촌 사람들과 하촌 사람들 대부분이 학살당하고 마을의 존속이 위협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 같은 비극적인 결과는 인민군의 남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금순과 순태의 관계를 시기하는 상촌 민우의 도발에서 시작한다. 타성이지만 같은 상촌에 살고 있는 금순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던 민우는 하촌의 순태와 금순의 관계를 알고 상촌 사람을 동원하여 매타작을 가한다. 이 사건은 그동안 지속되어오던 보이지 않는 갈등의 구조를 가시화하여 상촌 사람들에 대한 하촌 사람들의 “뿌리 깊은 원한”과 “보복심”을 건드린다.

하촌 사람들은 상촌 사람들의 지속적인 차별과 학대에 분노하지만, 자신들의 부당한 상황을 경찰에 알려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신 이들은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이들의 갈등 해소방안은 전쟁 이전까지 계급 갈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좌익의 투쟁 강령과 유사한 형태로 드러난다.

첫째 우리는 현대의 제 사조에 따라 인권평등과 계급타파와 개성존중을 유일한 목적으로한다.

둘째 상촌민 일동은 이조 오백년간의 반상제도와 봉건적 잔재를 일소하고 계급을 타파하라.

셋째 상촌민 일동은 금반 부당하나 억리 밑에 순태를 집단 구타한데 대하여 즉시 사과하라.

넷째 우리는 이 마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하고 분열을 피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즉각적이니 협상을 요망한다.¹⁰⁾

『방앗골 혁명』은 상하촌의 갈등을 조선 시대의 봉건적 제도로부터 이어져 온 마을의 뿌리 깊은 문제로 형상화한다. 표면적으로 이들에게 이데올로기적 계급 의식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결의 문에는 프로레타리아 계급운동의 문법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상촌과 하촌의 오랜 갈등 상황을 통해 반공의 담론 내부에서 발화될 수 없었던 계급 갈등의 문제가 형상화되었던 것이다. 방앗골의 갈등은 외부의 인민군이나 빨치산들이 순진한 마을 사람들을 기만하고 유혹한 결과가 아니라, 마을의 뿌리 깊은 차별적 구조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방앗골 혁명』에서 계급 갈등은 공산주의라는 낯선 이념에서 유래된 괴물적이고 야만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촌과 상촌 사람들의 내부에서 시작되었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상황이었다. 농촌의 현실에 관심을 집중해온 오유권의 작가적 노력은 바로 이러한 금기된 현실의 모순을 발견하고 혁명의 새로운 질서를 말할 수 있게 했다.

농촌의 현실로부터 유래하는 갈등의 구조는 기존의 계급혁명론을 새롭게 전유해낸다. 하촌 사람들의 현실 인식은 계급주의적 투쟁 강령으로 표면화되었지만, 이들의 싸움은 순태와 금순의 관계로 인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계급 갈등의 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10) 오유권, 『방앗골 혁명』, 을유문화사, 1962, 38쪽.

혁명의 방법이 시도된다. 하나는 하촌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운동의 방법이며 또 하나는 이와는 거리를 둔 순태와 금순의 결혼이라는 낭만적 결합의 방법이다. 순태와 금순은 자신들의 결합이 곧 마을의 오래된 악습을 해소하는 것이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싸움을 다짐한다. 당대에 금기시 되었던 계급 혁명의 욕망은 순태와 금순의 사랑으로 전위¹¹⁾되었던 것이다.

금순과 순태의 연애 서사는 두 사람의 감정 문제보다 이들의 사이에 놓인 계층 간의 갈등 구조에 집중한다. 금순과 순태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감에 기반한다. 그리고 소설은 두 사람의 연애 장면이나 감정의 교류에 주목하기보다, 이들의 결합을 막는 상촌 사람들과 금순 가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서사화한다. 이를 통해 금순과 순태가 경험하는 좌절과 시련은 오직 외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정되고 그것은 곧 상촌과 하촌의 갈등 구조로 환원된다. 금순과 순태는 “의에 어긋나는 한 무슨 일이든지 악착같이 싸우겠다.”라는 결심으로 자신들의 사랑을 완성해나가고자 한다. 낭만적 사랑의 서사는 곧 계급적 갈등의 해소를 위한 투쟁의 서사로 전환되는 것이다.

순태와 금순의 낭만적 사랑은 폭력을 철저히 배제한다는 점에서 하촌 청년들의 혁명운동과는 중요한 변별점을 지닌다. 금순은 순태가 좌익 활동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계하며, 폭력적인 모든 저항과 학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순태 역시 금순의 마음을 확인한 뒤부터는 상촌에 대한 폭력적인 복수를 주장하는 득보, 기남 등과 거리를 유지한다. 그리고 다만 금순과의 관계를 통해 “승리”를 취할 것이라 다짐한다. 계급 갈등의 극복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 억압되는 본능 충동은 전위를 통해 새로운 표상으로 전환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박찬부 역, 열린책들, 2020, 149쪽.

하고 낭만적 연애의 서사는 프로레타리아적 혁명론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갈등 해소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순태와 금순의 연애는 곧 폭력이 아닌 화해를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앗골 혁명』의 전체적인 주제 의식을 상징한다. 낭만적 사랑을 통해 상하촌의 화합을 이끌어 내려는 순태와 금순의 서사는 이념 갈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적인 상황들, 즉 전쟁의 상황과 대조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순태와 금순의 관계를 통해 비폭력적인 혁명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낭만화된 혁명의 의지들은 전쟁의 폭력과 고통을 더욱 사실적이고 비극적인 것으로 형상화하고, “유혈과 파괴”의 장면으로 한정되었던 1960년대 혁명의 이미지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혁명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방앗골 혁명』에서 순태와 금순은 자신들의 사랑을 막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피해 사랑의 도피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결합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계급적 갈등의 문제를 개인 간의 낭만적 사랑으로 봉합하고자 하는 서사적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방앗골 혁명』이 그려내는 전쟁의 경험이 의미 있는 것은 바로 폭력과 갈등의 구도를 외적인 이념의 결과물로 타자화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소설은 마을에 남은 순태와 금순 가족의 비극적 운명을 통해 민족 분열과 이념적 갈등 상황을 비판하고 새로운 결속의 가능성을 모색해 나간다.

금순과 순태가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은 보련 학살과 1차 인민 재판 학살, 2차 인민 재판 학살, 수복 뒤 인민군에 의한 학살, 국군에 의한 학살을 차례로 경험한다. 이들의 학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삶과 죽음을 가르치는 것이 좌우의 이념이 아닌 상하의 공간적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전쟁의 비극은 인민군의 침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상하촌 간의 갈등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설정된다. 그리고 모든 폭

력적 갈등 해소방안을 부정하는 태도 하에서 반공담론 내부에서 발화할 수 없었던 국군에 의한 학살 장면 역시 사실적으로 재현된다.

(가) 오씨 내외는 두어 발 상기한 소나무에 따로따로 묶이었다. 노끈에서 피비린내가 고약하게 풍겼다. 그제야 오씨부인은 새정신 들면서 살인장에 왔다는 걸 느꼈다. 세 사람이 칼과 죽창을 들고 가지를 둘러쌌다. 볼무골양반의 죽은 현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다. 아들 내외의 비명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남은 자식들이 눈앞을 스키고 지나갔다. 부인은 반항할 힘을 잃고 어깨를 묶인 채 고개를 떨어뜨렸다.

「오메 오메 나죽네에.」

「으흐흐흐.」

「앗」

「아퍼라, 아퍼라, 아퍼라.」

비참한 외마뼀소리가 처절한 가운데 급기야 옆의 남편이

「으」

부인은 자기 모른새 옆을 돌아보았다. 남편의 배에 죽창이 꽂혔다.¹²⁾

(나) 「도망가는 놈 있으면 썩라.」

부하에게 명령하자 결의 소대장이 탄알을 그득히 잇달아 놓았다. 방아쇠를 잡아 일사천발로 갈졌다.

「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개새끼들」

「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수백명의 하춘 사람이 바람에 쓸리는 갈대처럼 쓰러졌다. 몇 사람이 탄알을 뚫고 나오려고 했으나 허사였다. 경찰이 달려가 되는대로 쏘아갈것

12) 오유권, 『방앗골 혁명』, 을유문화사, 1962, 268쪽.

다. 상촌 사람의 시체 더미 위에 하촌 사람의 시체가 포개졌다. 보는사이 사이 골짜기 피바다가 되었다. 더떨네는 골통이 터져서 머리를 쥐뜯다가 숨이졌다.¹³⁾

금순과 순태가 떠난 마을을 뒤덮은 것은 잔혹한 전쟁의 폭력이었다. 『방앗골 혁명』은 마을에 도착한 군인들의 학살 장면을 통해 전쟁터 밖의 전쟁을 형상화한다. 그리고 국군 수복이 있을 무렵 방앗골에서 벌어진 가장 잔혹한 학살의 장면을 구체화한다. 떠나가는 인민군을 대표하여 하촌의 기남 등이 금순의 부모를 포함한 상촌의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가), 돌아온 국군 한수는 다시 순태의 부모를 비롯한 하촌의 사람을 학살한다(나). 반공의 담론 속에서 국군 수복의 순간이 종종 야만적인 인민군으로부터의 해방¹⁴⁾으로 형상화되었던 것과 달리 방앗골에서의 국군 수복 장면은 동일한 폭력과 학살의 순간으로 기록된다.

『방앗골 혁명』이 그려내는 이 잔혹한 학살의 장면에는 이념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의 장면에서는 기대된 이데올로기의 목소리 대신 비명과 총소리만이 들릴 뿐이다. 『방앗골 혁명』은 학살의 순간을 순수한 공포와 절망의 순간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이들의 죽음을 정당화할 어떠한 여지도 남겨놓지 않는다. 이들의 죽음은 서술자의 설명이 아닌 장면제시의 방식으로 전달되어 그 현장성이 극대화된다. 대화가 아닌 순수한 소리로 형상화되는 학살의 순간은 어떠한 의미 있는 언어로도 설

13) 오유권, 『방앗골 혁명』, 을유문화사, 1962, 276-277쪽.

14) 이는 『방앗골 혁명』과 같은 을유문화사의 전작장편소설 중 하나였던 강신재의 『임진강의 만들레』에서 서울 수복의 순간이 “태극기를 내꽂고” 있는 한강 유역의 풍경으로 그려지는 것과 대조해 볼 수 있다. 강신재의 소설에서 미군과 함께 서울을 되찾는 남한 군인의 감회가 강조되고 있다면, 『방앗골 혁명』에서는 이러한 국군의 내면을 읽어 내기 어렵다. 강신재, 『임진강의 만들레』, 『젊은 느티나무』, 민음사, 2020, 243쪽.

명할 수 없는 폭력적인 전쟁의 실체를 드러낸다. 생생한 학살의 순간을 서사화 함으로써 『방앗골 혁명』은 상하촌을 순차적으로 휩쓴 죽음의 논리를 폭력 그 자체로 재현해낸다.

대다수 전후의 반공 소설들은 죽음과 폭력의 장면들을 인민군의 형상 아래 놓으면서 반공주의와 공산주의가 모두 간섭하는 폭력적인 전쟁의 구도를 삭제한다. 하지만 『방앗골 혁명』은 전투가 이루어지는 전장의 외부라 할 수 있는 농촌 사회의 전쟁 경험을 통해 반공의 담론으로 포섭될 수 없는 이데올로기적 폭력의 결과물들을 선명하게 가시화한다. 그리고 전쟁의 경험을 정치적 이념 갈등이 아닌 공동체 내부의 계급 갈등의 문제로 전환함으로써 외부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전쟁 책임의 문제를 재사유하게 만든다. 방앗골의 전쟁을 통해 상대방을 향한 폭력적 배제의 논리가 은폐해 온 참혹한 고통의 순간이 드러나고 이념의 구획을 넘어서 희생자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방앗골 혁명』이 상촌과 하촌의 갈등에 주목하고 상촌 사람들의 하촌에 대한 학대의 문제를 제시하는 방식은 전후의 한국 사회가 금기시했던 계급 혁명의 주제를 다시 발견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낭만적 사랑이라는 범박한 평화주의의 형태로 귀결되었지만 반공의 진영 내부에서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새롭게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봉건적 신분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연된 농촌 사회의 전쟁 서사를 통해 금지된 혁명의 열망을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낭만적 사랑의 도피와 외연 없는 반공주의의 세계

『방앗골 혁명』은 전쟁을 둘러싼 이념 갈등의 문제를 마을 내부 상하

촌의 갈등으로 전환하여 갈등에 내포되어있는 새로운 문제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반공 담론으로 봉합되어있던 사회에 상존하는 계급적 갈등의 문제이다. 이는 조선시대부터 지속되어온 봉건적 사회의 유습이며 따라서 해방과 전쟁의 과정에서도 해결될 수 없었던 뿌리 깊은 모순이다. 금순과 순태의 결합은 이 오래된 봉건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이상적인 방법으로 제안된다. 하지만 이들의 결합은 방앗골 내부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설정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금순의 부모님을 피해, 그리고 좌익 가담자들을 색출하는 경찰의 시선을 피해 새로운 공간으로 도피한다.

2부에서는 금순과 순태가 순태의 대부 역할을 하는 박노인의 집을 찾아가 생존을 도모하는 과정이 서사화된다. 박노인은 군인 아들을 둔, 그래서 반공의 진영 내부에서 누구보다 확고하게 안전을 보장받은 인물이다. 순태는 자신이 가맹지원서를 쓰고 좌익 활동에 동조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금순과 함께 박노인을 찾아가 보호를 요청한다. 박노인은 순태의 이념적 정체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다만 그가 성실한 산지기라는 점을 바탕으로 경찰의 의심을 받는 순태를 보증한다. 소설의 서사를 통해 강조되는 노인들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념이 아닌 인간성이었으며, 순태와 금순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에 대한 신뢰였다. 하지만 전쟁의 위기 속에서 순태와 금순의 낭만적 사랑은 더 이상 갈등 극복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 마을 나오며 순태와 금순이 했던 싸움의 다짐, 봉건적 신분제에 저항하겠다는 각오는 사라지고 이들의 목표는 전쟁으로부터의 생존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생존이 위태로워질수록 이들은 강력하게 전쟁의 담론으로 포섭되어 간다.

마을을 떠나는 순간 순태의 좌익 경력은 삭제된다. 오히려 과거 순태의 좌익 이력은 그를 반공 투사로 만드는데 기여한다. 순태는 더 이상

좌익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이들의 이념의 허구성을 비판한다. 그는 자신의 이념적 진실성을 검증받기 위해 입산하여 “이중간첩”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순태의 이중간첩활동은 우연적인 과정을 통해 성공하면서 반공 진영 내부에서 순태와 금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순태는 입산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경찰과의 관계를 전환해 내는 것이다. 그리고 금순은 상이 경찰의 간호사가 되어 전장에 투입된다.

금순과 순태는 마을을 나간 뒤 바로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지 않는다. 이들은 서로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애정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사랑의 도피처에서 자신들의 싸움을 연기하고 반공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들이 도달한 도피처가 여전히 반공적 질서의 외부, 계급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순태와 금순이 낭만적 사랑의 도피처에서 마주하게 된 위기와 갈등의 현실은 『방앗골 혁명』이 의도한 혁명의 이상에 내포된 한계의 지점을 지시한다. 마을의 혁명이 상하 계급 간의 갈등 해소로 이해될 때, 혁명의 욕망은 곧 마을 사람들의 생존의 위기로 치환된다. 방앗골의 외부에는 계급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탈이데올로기적 공간, 반공의 외연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을 떠난 순태와 금순에게는 상하층의 갈등을 극복한 화합과 결합의 장면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의 싸움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마을을 나온 순태의 ‘갈 곳 없음’의 상황으로 형상화된다.

밤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대밭집을 나온 순태는 타박타박 산 하나를 넘자 바위에 가 주저앉았다. 도무지 들어갈 용기가 안 나는 것이다. 막상 지금 들어간대도 득보가 안 반길리아 없지만 당초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

가기 때문이었다.

걱정에 걱정을 거듭한 끝에 못이긴 듯이 일어섰다. 오던 길을 되돌아 걷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갈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타박타박 걸으면서 묵묵히 궁리만 되풀이하였다. 지서에 가서 거짓 정보를 알리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다. 그밖엔 살길이 없을 것 같았다.¹⁵⁾

『방앗골 혁명』은 전쟁기 순태의 영웅적 활동을 강조하면서 순태를 전후 마을 재건의 주체로 설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순태의 성공과 금의환향의 과정에는 반공의 외부에는 생존의 가능성이 없다는 폐쇄적이고 비극적인 현실 인식이 내포되어있다. 반공의 이념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와 금순은 살아남을 수 없었다. 과거 순태의 이력을 의심하는 경찰에게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고단한 과정이었다. 지속적으로 주변을 의심하는 반공주의의 매카시즘 속에서 순태는 다시 입산을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하지만 만약 다시 입산을 하게 되는 경우 죽음을 위장하여 빠져나온 순태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입산투쟁 과정에서 죽은 것으로 된 ‘빨치산 순태’는 산 아래에서도 죽음의 위기에 놓인다. 순태는 마을의 밖에서도 갈 곳을 찾지 못하게 된 것이다.

『방앗골 혁명』은 금순과 순태의 관계를 통해 이들의 계급 갈등 해소 방안이 계급주의적 혁명의 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면의 고백은 외부적 갈등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순태와 금순의 생존을 더욱 위협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방앗골을 떠난 이후 순태와 금순에서 계급 간의 화해라는 목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 서사의 중심은 낭만적 사랑에서 전쟁으로부

15) 오유권, 『방앗골 혁명』, 을유문화사, 1962, 212쪽.

터의 생존 과정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이 같은 서사적 급전과 그 사이에 놓인 간극은 외연 없는 반공주의의 공포를 확인하게 해준다.

1부에서 금순과 순태를 중심으로 밀도 있게 전개되던 낭만적 연애의 서사는 2부를 거치면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서사의 중심이 금순과 순태에서 마을에 남은 사람들로 이동되었다는 점에 한정되지 않는다. 마을을 나오는 순간 순태와 금순은 전쟁의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낭만적 연인 관계가 아닌 전쟁의 위기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동지적 관계로 전환된다. 이들의 목표가 전쟁으로부터 살아남는 것, 즉 반공 시민이 되는 것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사의 핵심적인 갈등 구조는 상촌의 금순과 하촌의 순태의 결혼이 아닌 우익과 좌익의 대립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좌익 이력을 지닌 순태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내면에서 불온한 계급 의식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한다. 순태와 금순의 낭만적 사랑의 혁명론에는 더 이상 상촌과 하촌 사이에 놓인 부당한 착취와 학대의 문제가 포함될 수 없었다. 모든 갈등은 다만 외부의 폭력이라는 형이상학적 주제로 환원되고 현실적인 모순의 구조는 침묵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전쟁의 공포는 순태와 금순의 낭만적 사랑을 이끌어갈 모든 동인을 삭제해버린 것이다.

순태는 결국 전시체제 하에서는 오직 반공주의자로서만 생존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진실한 반공주의자임을 검증하기 위해 거짓된 정보를 알려 자신의 이념적 순수성을 증명하기로 한다. 거짓을 고안해냄으로써 자신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인 순태의 처지는 전쟁의 폭력 앞에서 상하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혁명의 담론이 얼마나 위태로웠는가를 증언한다. 순태가 고안한 허위 정보는 우연히 상부의 “면밀한 작전계획”과 일치되고, 순태는 소탕 작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적인 전적을 확보하게 된다. 이후 순태는 자신을 고문하

였던 경찰에 대한 기억을 잊지 못하고 “치가 떨리는 분노”를 느끼면서도 경찰을 위해 빨치산들을 소탕하기 위한 정보를 탐색하는 역할을 자처한다. 그리고 비로소 대한민국을 위한 순수한 열정과 의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경찰과 함께 후퇴하는 상황에 이르러 순태는 “완전히 경찰과 동화”¹⁶⁾ 되었음을 느끼고 군경과 “생사를 같이 하는 공동의 운명에 놓였다.”¹⁷⁾는 소속감을 확보하게 된다.

이처럼 『방앗골 혁명』의 서사 내에서 반공주의의 외부는 상상 불가능한 것으로 남는다. 외연 없는 반공주의는 순태와 금순의 싸움을 국가를 위한 싸움으로 전환한다. 소설은 지속적으로 인민군과 빨치산의 목소리를 형상화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더 이상 마을의 오랜 갈등을 해소할 전망을 내포하지 못한다. 하촌의 득보와 기남을 비롯하여 좌익으로 전향하게 된 민우까지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좌익의 이데올로그들은 죽음에 이른다. 계급과 봉건제도로부터의 해방을 외치는 이들의 주장은 어떠한 실효성도 지니지 못한다. 마을에 내려와 함께 마을 재건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산양봉의 산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빨치산들의 서사는 전후의 사회에서 반공주의의 외연이 상상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증명한다.

낭만적 사랑과 계급 혁명의 이상이 좌절된 지점에서 순태와 금순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자신의 이상을 국가의 이상으로 전환하는 것뿐이다. 금기된 계급 갈등의 문제는 화합하고 단결된 민족이라는 상상된 공동체의 이념으로 전환된다. 진실의 은폐만이 유일한 생존의 대안이 될 때 혁명은 모든 현실적인 기반을 상실한 채, 이상화된 유토피아적 담론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전쟁의 외부로 추방된 방앗골의 혁명론이 어떠한 사

16) 오유권, 『방앗골 혁명』, 을유문화사, 1962, 242쪽.

17) 오유권, 『방앗골 혁명』, 을유문화사, 1962, 242쪽.

상적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혈연관계를 통한 통합과 결속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방앗골을 떠난 순태와 금순은 외연 없는 반공주의의 강력한 자장 안에 놓인다. 이들은 빨치산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단결되고 통일된 국가의 이상을 완성해나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촌과 하촌을 중심으로 구획되었던 마을의 갈등 구도는 좌우 이념의 갈등 구도로 재배치된다. 좌익이 된 기남, 득보, 민우 등은 출신 지역과 상관없이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고 우익이 된 순태를 비롯하여 상촌의 석남 등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희생을 감내한 재건의 주체로 전환된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사라진 방앗골에서 윤노인의 화해와 결속의 논리는 곧 유일한 재건의 대안이 된다. 상촌과 하촌의 갈등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계급이라는 이념적 갈등의 구조는 전쟁을 거치며 모두 휘발된다. 이들에게 남은 혁명의 목표는 무엇에도 복수하지 말라는 평화의 논리인 동시에 전쟁의 희생은 “시운”이라 피할 수 없다는 무력한 용서의 논리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급은 있을 수밖에 없다”¹⁸⁾는 소박한 이상으로 한정된다. 결국 순태와 금순이 돌아온 뒤의 방앗골은 탈이념적이고 비폭력적인 결속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신화적인 세계로 고립된다.

18) 『상촌 양반 틈에서 사시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설혹 하촌에 산다고 해도 그런 짓은 반대하겠어요. 계급을 타파하고 어찌고 하지만, 나도 실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인원을 짓밟는 것은 질색으로 알지만,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는 한, 설혹 공산주의 국가라고 할지라도 계급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만날 때 마다 되풀이하는 그녀의 충고였다. (오유권, 『방앗골 혁명』, 을유문화사, 1962, 105쪽.)

4. 고립된 평화와 퇴행하는 재건의 논리

방앗골의 전쟁은 1.4 후퇴가 시작되기 전에 종결된다. 『방앗골 혁명』은 정정안 반대 시위와 포로 석방 문제, 거창 양민학살 사건 등의 일련의 문제상황들을 외부의 문제로 설정하고 방앗골 내부를 “평온한 질서가 유지”되는 공간으로 설명한다. 순태는 재건을 위해 자유당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경찰 측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정치 담론의 외부에서 상촌과 하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에 전념한다. 방앗골은 중단된 전쟁의 현실을 수용하는 대신 외부와는 단절된 별개의 공간으로 전환되고 분단이 아닌 단결과 화합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이상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고립된 농촌의 평화는 불안정한 전쟁의 현실에서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전후의 전망으로 기능한다.

마을로 돌아온 순태와 여러 위기에서 살아남은 윤노인이 재건의 목표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마을이 더 이상 이데올로기적 전쟁의 논리가 반복될 수 없는 폐허의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내남없이 총을 메야하는 젊은이”들이 모두 떠난 방앗골에는 고아와 과부만 남게 된다. “좌익의 만행이 가장 심했던 곳”으로 설명된 방앗골에서는 전쟁의 시작도 국군의 수복도 늦게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의 피해가 가장 커질 수밖에 없었다. 전쟁의 피해가 가장 컸기 때문에 방앗골의 전쟁은 가장 먼저 끝난다. 반복된 학살로 인해 폐허가 된 마을에 남은 고아와 과부들은 전쟁의 책임자가 아닌 전쟁의 피해자였다. 젊은이들이 모두 사라진 마을은 전쟁과 관련된 모든 정치적 관계로부터 단절된 채 오직 외부의 이념 갈등에 의해 희생된 공간으로 재설정된다. 좌익 활동으로 유명하였던 방앗골은 이제 민족의 수난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돌아온 순태와 금순, 그리고 상촌에 남아 생존한 석만은 윤노인의 가르침에 따라 마을 재건의 방향을 정립한다. 그것은 이전의 젊은이들이 내세웠던 폭력과 복수의 갈등 해소 방안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방앗골 혁명』의 서사 전반을 통해 윤노인은 화해와 용서라는 일관된 가치를 전달한다. 윤노인은 가장 처음 하촌과 상촌이 갈등할 때에도 하촌 사람들의 폭력적인 저항에 반대했었다. 상촌의 부당한 학대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하촌 청년들의 저항을 막아서는 것은 “보복과 살상을 혐오”하는 노인의 성격 때문이었다. 이러한 윤노인의 논리는 상촌과 하촌의 사람들이 차례로 학살당하는 전쟁의 상황에서 더욱 숭고한 원칙이 된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윤노인의 화해와 용서의 논리에 동조하고 그의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모든 젊은이들이 죽거나 전쟁터로 떠난 마을에서 윤노인의 평화론은 유일한 재건의 대안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윤노인의 재건론은 모든 폭력을 부정하고 불용하는 강력한 평화의 의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전후의 현실에 대한 하나의 전망으로 읽힌다. 하지만 동시에 윤노인이 내세운 용서의 재건론은 본질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것은 변화가 아닌 보존을 추구하는 노인의 세계를 대변하는 것이었으며, 마을의 갈등과 관련된 어떠한 역사적 모순에도 침묵하는 수동적인 혁명론에 기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방앗골에서 전쟁은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분열과 갈등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이었으며, 이와 같은 위태로운 현실 하에서 상하촌의 갈등을 극복하고자 했던 혁명의 의지들은 다만 ‘복수하지 말라.’는 소박한 원칙을 넘어서지 못한다. 눈앞에 놓인 착취와 학대의 문제들은 모두 전쟁으로 인한 학살의 공포 이면으로 감춰진다. 마을을 재건하고자 하는 강렬한 혁명의 의지는 그 적절한 표출의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설명할 수 없는 운명의 비극으로 환원된다. 그리하여 모든 마을의 사람들은 고통

스러운 기억에 대해 침묵하고 이를 다만 시변(時變)으로 봉합해버린다. 윤노인의 논리는 계급적 갈등에 대한 혁명적 의지를 무화하면서 “백성은 끄는 데로 움직였”을 뿐 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선의로 화해할 것”을 주장하는 윤노인의 온건한 해결책은 약자들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겨둔다는 점에서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이를 전체를 위한 희생으로 봉합하는 것이었다. 윤노인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과감하게 화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상하촌의 갈등을 해소하려 한다. 하지만 이는 계급이라는 본질적인 갈등의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아닌 이를 승인하고 용납하는 방식일 뿐이었다. 따라서 『방앗골 혁명』에서의 혁명의 정신은 변혁과 혁신이라는 최종의 목표를 잃고 마을의 생존을 위한 다급한 화해의 목소리 내부로 억압된다. 방앗골에서의 갈등 해소는 언제나 구조적인 개편이 아닌 불안감에 억눌린 화해의 요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들의 혁명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비약하지 못한 채, 현재의 위기를 봉합하는 것에 집중한다. 그리하여 윤노인 재건론은 비현실적인 평화론인 동시에 지엽적인 방법으로 구체화 될 수밖에 없었다. 윤노인은 상촌에 복수를 하기보다는 “벗섬을 받고 화해”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따라 상촌의 상만은 술을 빚고 소를 잡아 화해를 요청한다. 방앗골의 오래된 갈등의 구도는 ‘벗섬을 받고 술을 내어주는 것’이상의 화해의 방안을 고안해 낼 수 없었던 것이다.

방앗골의 재건의 논리하에서 구조적인 불평등의 문제나, 마을 사람들이 경험한 불신과 고통의 경험들은 모두 잊어야 할 것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망각의 단결론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을의 자손을 불려야 한다.”는 윤노인의 다급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상촌과 하촌의 사

람들을 하나로 결속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된다. 마을 사람들은 갈등의 근원을 헤집고 이를 직시하는 대신 망각하는 것이 전쟁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임을 깨닫는다. 위태로운 갈등과 분열의 가능성을 서둘러 봉합하면서 윤노인은 모든 개인적인 원한 관계와 학살의 기억들을 잊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상하촌의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분노와 불안감을 억누르면서 다 같이 “잇고 삼시다.”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친다. 갈등과 폭력의 과거를 다만 잊음으로서 종결시키고자 하는 재건의 방향은 곧 마을 전체를 하나의 유사 가족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실현된다.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어떠한 담화도 허용되지 않는 신화적 세계 내부에서 결속을 달성하는 것은 오직 오래전 과거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혈연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¹⁹⁾ 그리고 이는 폭력을 거부하면서 마을의 결속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된다. 결국 방앗골의 혁명론은 인위적인 가족 구성의 과정을 통해 마을을 모두 혈연관계로 묶어 단결을 보장하는 기이한 재건의 목표를 내세우게 된다.

계급적 갈등에 대한 정치적 해소방안을 포기한 방앗골의 사람들은 단결된 마을의 이상을 하나 된 가족에 대한 상상으로 전환한다. 윤노인은 그것을 실질적인 가족으로 구현해냄으로써 마을을 하나의 거대한 혈연 공동체로 만들어나간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이 됨으로써 상촌의 이씨를 중심으로 권력이 편중되어 있던 방앗골에서 계급적 갈등의 문제

19)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방앗골 사람들은 이러한 평화적인 황금기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상상된 이상향의 과거로 등장하는 농촌의 풍경은 변화를 거부하면서 일시적인 안정을 거부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안정되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에 기초한 과거의 이상화는 당대의혹심했던 현실적 모순을 은폐하고 회피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 『시골과 도시』, 이현석 역, 나남, 2013, 99쪽.

를 해소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혈연관계를 통한 갈등 극복의 첫 번째 과정은 윤노인과 순태가 마을의 한 가운데에 집을 짓는 것으로 시작된다. 완성된 집에 사는 가족은 상촌의 사람도 아니고 하촌의 사람도 아닌 하나 된 마을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그 다음 순태와 금순의 집은 곧 모든 고아와 과부를 위한 ‘가정’으로 확장된다. 윤노인은 마을에 남은 과부와 고아를 “하나씩 잡아매주어” 모자의 관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이때의 모자 관계는 당연히도 상촌의 어머니와 하촌의 아이, 하촌의 어머니와 상촌의 아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축사가 끝나자 사진사가 들어왔다. 전부 서서 한 번 찍고, 고아와 부모들만 모여서 한 번 찍고, 또 그 어미되는 과부와 그 자신되는 아이만 나란히 서서 한장씩 찍었다.

「과거는 잊읍시다.」

「앞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잊고 삽시다.」²⁰⁾

박제된 사진의 주인공들처럼 상촌과 하촌의 어머니들은 모든 생생한 고통의 경험을 잊음으로써 재건의 주체가 되고자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기억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유일한 평화와 생존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잊읍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만, 윤노인의 설득 때문만은 아니다. 이들 자신이 마을의 갈등 구조가 표면화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참혹한 결과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쟁은 단순히 학살의 종결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들의 삶에 끊임없는 공포와 불안을 불어넣으면서 무의식적인 혁명의 의지들을 강력하게 규율하는 것으로 상존하게 된다.

20) 오유권, 『방앗골 혁명』, 을유문화사, 1962, 361쪽.

가족제도는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 유일한 결속의 방안으로 고안된다. 과부와 고아의 가족 관계는 부모 없는 아이와 오갈 데 없는 여성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안이었지만 동시에 개인의 감정과 관계를 모두 마을의 단결과 결합이라는 목표로 환원하는 폭력적인 것이기도 했다. 마을의 번영을 위해 가장 사적인 관계라 할 수 있는 가족을 재구성하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는 단순히 마을의 번영을 기도하는 마음이 아닌 다시 마을이 분열될 경우 자신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었다. 분열에 대한 불안감은 부당한 현실에 대한 모순들을 극복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억압하였다. 결국 과부와 고아들의 가족을 통해 구성되는 마을 재건의 방안은 과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망각하는 위태로운 방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고아들과 이들을 보육하는 과부들은 순태의 넓은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한다. 윤노인은 모자 관계를 통한 가족 구성에 만족하지 않고 마을의 번성을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설득하는데, 그것은 마을의 모든 과부들이 하촌의 순태와 상촌의 석만을 남편으로 삼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때의 결속 역시 상촌의 과부와 하촌의 순태를, 하촌의 과부와 상촌의 석만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윤노인의 재건론은 아무리 폐쇄적인 농촌 사회라 할지라도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며, 순태와 석만을 망설이게 한다. 일부다처의 제안이 곧 “야만적 부족”사회가 아닌지를 의심하는 순태의 말에는 미래가 아닌 과거를 향하는 재건론의 한계가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오직 다급하게 갈등의 봉합에만 집중하는 윤노인은 다시 대국적 견지를 강조한다. 결국 계급 갈등을 둘러싼 순태와 금순의 낭만적 사랑의 서사는 급박한 재건의 목표 하에서 퇴행적인 혁명의 이상으로 전환된다.

방앗골 혁명의 마지막 단계로 설정된 일부다처의 가족제도는 낭만적

사랑을 통해 계급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자 했던 서사의 전반부와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결과였다.²¹⁾ 낭만적 사랑의 서사에서 순태와 금순의 결혼은 곧 상촌과 하촌의 평화적 결합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소설에서 이들의 결혼은 마을의 외부가 아닌 마을에 다시 돌아온 뒤 비로소 결정된다. 윤노인이 주도한 결혼식은 순태네의 하촌 사람들뿐만 아니라 금순이 살던 상촌의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는 화합의 장면으로 형상화된다. 하지만 이러한 재건의 과정은 결국 마을의 변영이라는 명목 하에 일부다처의 사회를 승인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서사의 전반에서 계급운동과 거리를 두면서 하촌 사람들과의 화합을 주도했던 금순은 결혼 뒤 처첩제도의 하의 봉건적 여성으로 회귀한다. 그녀는 일부다처의 제안에 대해 어떠한 반대의견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본처임에는 변함없지 않소.”²²⁾라는 말로 모든 낭만적 사랑의 방향을 전환시킨다.

낭만적 사랑을 위한 순태와 금순의 싸움은 결국 그것과 정반대의 형태를 띤 전근대적인 일부다처의 결과로 종결된다. 이는 폭력적인 계급혁명이 아닌 낭만적 사랑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혁명의 한계를 지시한다. 금순과 순태의 결혼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것이 곧 학살로 폐허가 된 마을을 재건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었다. 윤노인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과 공포는 다급하게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전쟁의 공포를 망각하고 무엇보다도 빠르고 확실하게 결속하기 위한 방안은 일부다처의 가족제도였다.²³⁾ 그

21) 낭만적 사랑은 근대적 현상의 하나로 설명되는데, 이때의 낭만적 사랑은 개인이라는 주체의 개체성을 포함하며 결혼이라는 지속에 대한 전망을 지닌다. 니클라스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정성훈 외 역, 새물결, 2009, 210쪽.

22) 오유권, 『방앗골 혁명』, 을유문화사, 1962, 395쪽.

23) 프로이트는 목표에 도달하여 만족을 가져다주는 충동이 높은 발달의 단계에서 거센 외부의 장애물들에 직면하게 될 경우 퇴행의 동기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불안을 억압하는 하나의 방어기제로서의 퇴행은 불안의 의식이 강화될수록 불안이 존재하

리하여 방앗골은 모든 마을 사람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완성한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방식으로 계급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반공주의적 농촌 사회에서 혁명은 혈연에 기반한 원시적 공동체로 퇴행함으로써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방앗골 혁명』에서 혈연적 가족공동체는 전후 마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설명된다. 방앗골에서 전쟁은 이미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마을의 주민들은 언제든 잔혹한 학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대적인 연애와 결혼의 서사는 결국 재건을 위한 하나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에 실패한다. 재건이라는 “대국적 견지” 앞에서 혁명의 이상은 분열되고 왜곡되는 것이다. 방앗골에서의 혁명은 모든 개인적 관계를 마을의 장래를 위한 명분으로 귀속시킴으로서만 가능해진다. 일부다처의 이상이 실현된 후 방앗골의 마을 사람들은 원시적 부족사회와 유사한 공동체 생활을 지속한다. 공동의 자산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경제력이 있는 남성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방식으로 집단의 생존을 모색해 나간다.

개인이 아닌 마을의 번영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방앗골의 모든 혁명적 제도들은 마을을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의 결과물로 승화된다. 그리하여 부부의 관계에서 오직 종족 번식이라는 목표만을 남긴 이 야만적인 가족제도는 당번제라는 “세련된 규율”로 재규정된다. 아내들과 남편은 “당번제”에 따라 잠자리를 같이하고 “당번”이 아닌 날에는 “사적인 대화”조차 나누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다처제를 일종의 남성으로서

지 않았던 이전의 세계로 이동해 나갈 수밖에 없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강의』, 임흥빈 역, 열린책들, 2020, 460쪽; 노안영·강영신, 『성격심리학』, 학지사, 2021, 179쪽.

의 성공으로 간주하는 석만의 태도²⁴⁾와 같이 그것이 아무리 규칙과 질서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부부간의 관계는 결코 승고한 재건의 논리로 승화될 수 없는 사적이고 육체적인 관계였다. 따라서 방앗골은 과거를 망각하고 혈연에 기반하는 방식으로 마을의 결속을 달성하고자 했으나 그 내부의 해소되지 않는 불안감들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다. 방앗골의 재건론은 내부에 상존해온 지속적인 갈등의 구도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이를 다만, “대국적 견지”라는 이름으로 그 내부로 봉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살아남은 방앗골의 주민들은 모든 갈등의 요소들을 봉합하는 데 집중한다. 현실적인 갈등과 분열의 가능성들은 모두 절대적인 부정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갈등과 분열에 대한 이 신경증적 공포는 혁명의 이상을 실천 가능한 미래가 아닌 상상된 과거의 풍경으로 봉인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모순적인 현실과 사회 구조의 해소를 의도한 평화적 혁명의 가능성은 발화할 수 없는 무의식의 내부로 억압되고 마을은 미래가 아닌 과거로 퇴행한다.²⁵⁾

24) 「견딜만 하나?」

석만이 물었다.

「못살겠다.」

「아름든 나보다는 행복하지?」

「뭐가?」

「두 사람이 많으니까.」

「에잇 사람! 그러면 자네가 다 데려사소.」

「그건 안될 일이야.」

「그래도 지킬 것은 지키는 군..... 정말 희생이라도 이런 희생은 없겠다. 얼굴 여위 는 것 좀 봐라.」

(오유권, 『방앗골 혁명』, 을유문화사, 1962, 106쪽.)

25) 프로이트는 억압의 본질을 “어떤 것을 의식으로 진입하지 못하게하여 의식과 거리를 두게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를 설정한다. 프레드릭 제임슨은 이를 사회적 의미로 확장시켜 서사를 “역사적 모순들을 집단 의식으로 억

『방앗골 혁명』이 발견해낸 농촌 사회의 오래된 갈등 관계는 이제 단결이라는 목표로 집중된다. 단결과 결속은 마을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 이자 이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망각을 바탕으로 하는 용서와 화해의 논리는 본질적인 갈등의 원인들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한다. 갈등의 관계는 언제나 표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다. 전쟁에서 돌아온 동수와 민우의 등장은 이러한 위태로운 혁명의 실체를 목격하게 한다. 상촌의 젊은이들이 되돌아와 자신들의 재산과 지체를 되찾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이들의 개인적인 일탈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들은 잔혹한 학살을 떠올리게 하는 강력한 촉매가 되어, 생존을 이유로 억압해두었던 불안의 감정을 다시 표면 위로 노출시킨다. 따라서 순태와 석만은 동수와 민우의 귀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들이 다시 분열을 일으킨다면 “목숨을 바치고라도 싸우겠다”는 의지를 내보인다. 전쟁과 갈등을 막기 위해 다시 전쟁을 주장하는 모순적인 평화론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을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이들의 싸움은 결국 ‘총’이라는 가장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종결된다.

0625라는 의미심장한 번호가 적힌 순태의 총은 금순과 순태가 한수를 죽이고 난 뒤 보관해오던 것이었다. 순태와 금순은 마을의 한 가운데에서 집단 가족제도를 유지하면서 평화로운 방앗골의 이상을 실현해나가고 있었지만, 이들의 노력에는 감추어진 과거가 놓여있다. 그것은 바로 마을에 돌아온 순태와 금순이 학살당한 가족의 시체를 찾으러 웅잇재에 갔을 때 동일한 이유로 학살장소에 돌아온 한수를 만나게 되었고 몸싸움 끝에 그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순태의 마을 재건은 이러한 살인을 감

누르는 특수한 메커니즘”으로 설명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박찬부 역, 열린책들, 2020, 139쪽; 윌리엄 C. 도울링, 『정치적 무의식을 위한 서설』, 광원석 역, 월인, 2000, 144쪽.

추면서 가능해지는데, 순태는 자신의 살인을 가족을 죽인 한수에 대한 복수가 아닌 한수의 “양민살해”에 대한 처벌로 합리화한다. 한수와 순태 모두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었고 가족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학살의 장소에 가게 되지만, 순태는 한수를 다만 양민학살의 주체로 한정하여, 그를 살인하는 것으로 모든 비극을 종결할 수 있었다고 선언한다. 어떠한 갈등의 가능성도 부정하고 오직 평화의 목표만을 달성하겠다는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방앗골의 재건론은 결국 순태를 죽이러 온 민우를 동일한 총으로 살해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원시적 가족 공동체를 통해 위태롭게 지속되던 마을의 평화는 역설적으로 0625가 기입된 총을 통해서만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다.

마을의 오랜 갈등의 구조들을 혈연적인 가족 관계로 통합한 방앗골의 혁명은 어떠한 분열과 갈등도 용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강력한 결속의 논리를 구사한다. 하지만 결국 혁명을 완성하고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한방의 총성이었다. 이러한 모순적인 혁명의 구도는 반공의 이데올로기 내부에서만 혁명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분단 사회의 모순된 현실을 반영한다. 중단된 전쟁의 현실에 놓인 전후의 사회에서 민족의 단결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유일한 방안은 갈등의 불안과 공포를 개인의 내면에 통합하는 방법뿐이었다. 온전한 평화가 약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론을 구축해야 했던 분단 사회에서 변혁과 혁신의 논리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방앗골 혁명』은 상상된 신화적 세계 내부로 혁명의 정신을 수렴해나간다. 그리고 전후의 농촌 사회를 분단체제 내에서는 불가능했던 평화적 공간으로 신화화한다. 이제 농촌이라는 배경은 계급 갈등의 모순을 드러내는 현실적 공간이 아니라 전후의 사회가 구성해낸 또 다른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방앗골 혁명』의 서사는 위태로운 전후의 무의식을 드러냄으로써 분

열과 갈등에 대한 강박적인 공포와 불안이 내재되어 있는 분단 사회에 남겨진 혁명론의 모순적 구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5. 결론

오유권의 『방앗골 혁명』은 남도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전쟁의 경험을 서사화한다.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전쟁 서사에서 주목할 것은 이들의 전쟁에는 피난과 부역이라는 전형적인 전쟁 갈등의 구조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학살을 피해 잠시 마을 떠나기도 하지만, 언제나 자신들의 토지, 공간과 강력하게 결속되어있다. ‘조상의 선산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마을 사람들의 전쟁 속에서 잔류를 곧 부역으로 간주하는 급박한 전시의 논리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농촌의 전쟁 서사는 전쟁의 논리를 즉각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공간에 묶인 대다수의 사람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폭력적인 갈등의 구도를 재현해내는 데 성공한다.

『방앗골 혁명』은 전쟁의 상황에서 폭력과 학살의 장면을 강조함으로써 강력한 반전의 논리를 내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강력한 반전의 논리는 반공의 이데올로기를 승인하고 수용한 결과물이기도 했다. 『방앗골 혁명』은 외부로의 탈출 가능성이 없는 반공주의의 세계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내부에서 신분적 갈등의 문제를 다룬다. 계급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급 갈등의 모순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하고 불완전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방앗골의 혁명가들은 계급이 없는 미래를 꿈꾸는 대신 모두가 평온했던 상상된 과거의 세계로 향한다.

『방앗골 혁명』이 창작된 1960년대 초반의 한국은 이러한 퇴행적 혁명

서사의 비극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4.19 혁명과 군사 혁명이라는 모순적인 혁명의 용례들 사이에서 『방앗골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의 실체로 등장한다. 그것은 낭만적 사랑을 근간으로 유혈과 폭력이 없는 혁명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잔혹한 학살과 폭력의 공포 속에서 강렬한 혁명의 정신은 무의식의 세계로 퇴행할 수밖에 없었다. 외부의 모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단절하면서 재건되는 방앗골은 이상적인 평화의 공동체인 동시에, 모든 갈등을 부정하는 위태로운 공간이기도 하다. 그곳에서는 어떠한 개인적 관계도 공동체의 변형이라는 목표 앞에 놓일 수 없다. 평화를 위해 누군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만 유지되는 방앗골 혁명의 모순은 분단된 사회에서 평화와 계급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모순을 은유한다.

『방앗골 혁명』은 전쟁 뒤에도 여전히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다수의 혁명 의식을 드러낸다. 이들은 하나의 가족-혈연 내부에서 발생하였던 치열한 전쟁의 기억, ‘동족상잔’의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갈등과 분열의 가능성을 서둘러 봉합해버린다. 가난한 자와 부자, 양반과 농민이라는 계급의 문제를 해소하는 대신, 가족의 구성을 통해 모두의 신분을 하나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방앗골의 혁명적 이상은 체제 밖에서 사회적 갈등의 극복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었던 분단 사회의 유일한 전망으로 제시된다. 그것은 북진 혹은 남진을 통해 통일을 이루고자 했던 전쟁의 논리를 부정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지만, 역사적인 현실과 정치적 관계로부터 이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현실 것이었다. 전쟁 발발 후 10년이 지나고 4.19를 통해 새로운 체제에 대한 전망이 요청되는 지점에서 발표된 『방앗골 혁명』은 전쟁을 통해 때늦은 혁명의 서사를 완성해나간다. 그리고 이는 분단 사회에 놓인 혁명의 비극적 운명을 예언한다. 그것은 언제나 달성될 수 없는 것으로 남

겨져 있으며, 수많은 실패를 예고하면서 무의식적 서사의 형태로 반복되는 불가능한 혁명의 정신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혁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순적인 현실의 구조를 발견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목격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오유권, 『방앗골 혁명』, 을유문화사, 1962.
강신재, 『임진강의 민들레』, 『젊은 느티나무』, 민음사, 2020.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2. 논문과 단행본

- 권보드레·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 상상, 2012.
권보드레, 『4월 문학혁명, 근대화론과의 대결』, 『한국문학연구』 3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0, 269-312쪽.
김미란, 『젊은 사자들의 혁명과 증발되어버린 ‘그/녀들』, 『여성문학연구』 23,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79-118쪽.
노안영·강영신, 『성격심리학』, 학지사, 2021.
니클라스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정성훈 외 역, 새물결, 2009.
레이먼드 윌리엄스, 『시골과 도시』, 이현석 역, 나남, 2013.
박대현, 『4월 혁명 이후의 공백과 탈공백』, 『한국 문학이론 비평』 5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207-233쪽.
변화영, 『전후 작가의 공간체험과 기억의 재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2,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2, 255-275쪽.
_____, 『오유권 소설에 나타난 농촌 여성의 표상』, 『현대문학이론연구』 57,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125-150쪽.
윌리엄 C. 도울링, 『정치적 무의식을 위한 서설』, 곽원석 역, 월인, 2000.
이봉범, 『민중적 시각으로 조명한 전쟁의 비극과 농촌공동체 복원의 문제』, 『민중문학사연구』 16, 민족문학사학회, 2000, 275-299쪽.
_____, 『체험적 서사와 역사적 진실성』, 『반교어문연구』 23, 반교어문학회, 2007, 189-221쪽.
_____, 『오유권 문학의 특징과 위상』, 『한민족문화연구』 44, 한민족문화학회, 2013, 191-228쪽.
임규찬, 『4월 혁명의 기억과 글쓰기』, 『작문연구』 12, 한국작문학회, 2011, 77-108쪽.
장 다비드 나지오, 『정신분석의 근본 개념 7가지』, 표원경 역, 한동네, 2017.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강의』, 임흥빈 역, 열린책들, 2020.
_____,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박찬부 역, 열린책들, 2020.

- 추선진, 『4.19 소설의 여성 표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2(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8, 57-80쪽.
- 최애순, 『1950년대 농촌 소설의 위치와 '1950년대 농촌'의 순수 지향성』, 『국제어문』 61, 국제어문학회, 2014, 425-461쪽.
- 최원식·임규찬, 『4월 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비평사, 2002.
- 최은영, 『오유권 선집』, 현대문학, 2013.
- _____, 『주변인으로서의 농촌 여성과 긍정의 세계』, 『Journal of Korean Culture』 35,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6, 235-260쪽.
- 프레드릭 제임슨, 『정치적 무의식』, 이경덕·서광목 역, 민음사, 2015.
- 하상일, 『전후 비평의 타자화와 폐쇄적 권력지향성』, 『한국문학논총』 36, 한국문학회, 2004, 305-329쪽.

Abstract

Post-war Countryside and The Narrative of The Impossible Revolution

Lee, Min-Young(Kookmin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the consisting process of the narrative of the revolution in the 1960s focusing on the narrative of the revolution in Oh Yu-gwon's *Bangatgol Revolution*. It was the 1960s when various meanings of revolution reappeared and disappeared at once. However, there are not many works that actually deal with the contemporary meaning of the revolution. It is worth noting that Oh Yu-gwon deals with the problem of revolution in the background of rural society.

Bangatgol Revolution, which explains the village's feudal status system as the cause of division and conflict, makes the problem of class conflict visible and reveals the possibilities of a tabooed revolution. In addition, it visualizes the spectacle of the brutal violence of warfare contrasting peaceful rural landscapes, not battlefields. And through this, the novel reveals the will to pursue peace and solidarity beyond ideological conflicts. In this process, the love between Suntae and Geumsoon, the protagonists, emerges as a peaceful alternative to overcome the class conflict between Sangchon and Hachon.

The revolutionary wills of the *Bangatgol Revolution*, driven by romantic love, are thwarted by the powerful anti-communist ideology. The protagonist, who has a career on the left, confirms the reality that there is no outside anti-communist party through war. And in a village where political speech is prohibited, they try to bond the town's people by blood to resolve the conflict. The polygamous family system appears as the only way to close the anxiety of division and conflict that lies between the upper and lower villages. Ultimately, the revolutionary theory of peace, which forbids all violence and revenge, ends in the form of a regressive primitive community.

The discourse of the revolution of *Bangatgol Revolution* could be considered as a mirror image of the revolutionary spirit of the 1960s, which lost its prospects. Resolving the problem of deep-rooted inequality and abuse of the town becomes no

longer the goal of the revolution. The regressed will of the revolution erases the historicity and locality of the town, transforming the town into a mythical space. And this imaginary space is precariously maintained by killing the young people of Sangchon who have returned. The revolutionary narrative of Bangatgol reveals the archetypal structure of a war narrative of a rural while mythizing the images of the nation. And it confirms how the spirit of revolution was distorted and appropriated in a divided society.

(Keywords: Revolution, romantic love, class, war, political unconscious)

논문투고일 2022년 4월 29일

논문심사일 2022년 6월 7일

수정완료일 2022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15일